

‘재생공간 속 돌봄’, 주민들의 생각 들어볼래?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에서 삶터로, 생각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한다. 재생의 대상은 도시만이 아니라 우리 삶터 전역으로 확장되고, 재생의 목적은 공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¹⁾ 이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돌봄’의 목적과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중심 가치는 ‘주민’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재생공간 속 돌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돌봄’을 핵심 국정 과제이자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세 곳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수요 파악’을 위해 연구 및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 제안사항을 도출해봄으로써 보다 더 나은 사업 내용을 구상하고 채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성별·연령별 수요 차이를 고려하고, 공간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전지혜_동구 모니터단



뉴딜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도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주민 자생력 키워야 해

노현준_동구 가오동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역 외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듣는 과정이 있어야

김인혜_유성구 모니터단



세부적인 운영 방향을 세우기 위해 민간주체를 포함한 거버넌스 만들고 있어

이태호_유성구 어은동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장



돌봄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간을 구상하고, 계획할 필요 있어

김경선_대덕구 모니터단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생, 청소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 규모 확대할 계획 있어

이성일_대덕구 신탄진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지난 12월 19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절차 및 방법, 현장 모니터링 활동 내용 및 제안 사항까지 전반적인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자세한 연구 내용 및 현장 모니터링 내용은 ‘2019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정책 모니터링- 도시재생 뉴딜 돌봄사업의 수요 파악’ 보고서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정석(2019), <천천히 재생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
2) 대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연구원 발간물에서 확인 가능함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부터
결과 공유까지**

현장 모니터링은 시민모니터단이 직접 도시재생 뉴딜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현장 모니터링 운영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현장 모니터링 이후에 모두 이루어졌던 조별 멘토와의 만남을 현장 모니터링 '전'과 '후'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따라 차별화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고, 제안사항을 다각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장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방법



**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시민모니터단이 도시재생 뉴딜지역 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주요 제안사항을 환경, 운영, 프로그램 및 공간 측면에서 분류·분석했다.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터말 살리기’

새터말 커뮤니티센터 조성

- **환경적 측면**
 - 고령층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 동선의 위험요소 제거, 휴게 의자 설치, 안전 조명 설치 등 보행 환경의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 **운영적 측면**
 -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은 주간 집중 구성하고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야간 집중 구성함으로써 이용률 제고
- **프로그램 및 공간적 측면**
 - 남성들은 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므로 남성 주민 대상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요 조사 필요
 - 아이돌봄 공간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부모 대상 공동육아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공간 지속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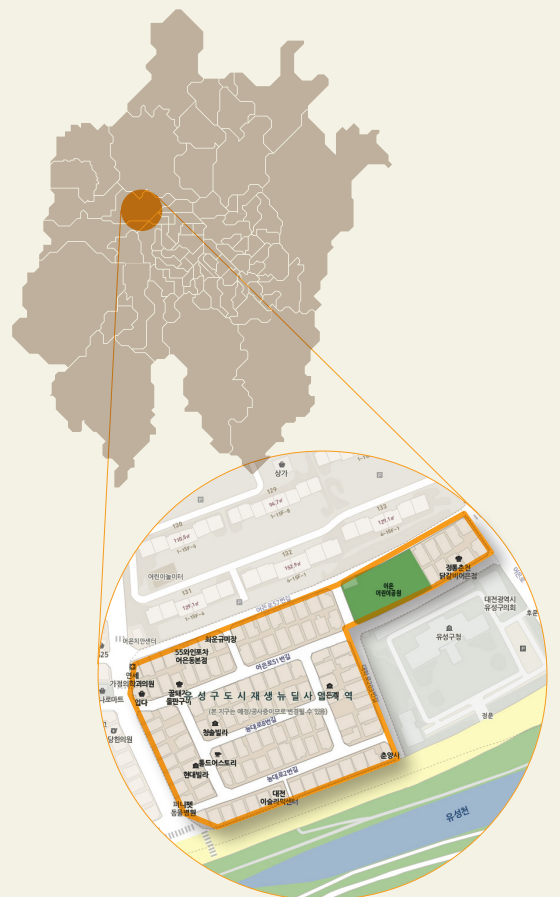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커뮤니티센터 조성

- **환경적 측면**
 - 다목적실 및 작은도서관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 안에 조성 예정인 주거형 셰어오피스는 다른 성격의 공간임을 고려해 출입구 분리·배치함으로써 ‘안전성’, ‘활용도’, ‘편의성’ 제고
- **운영적 측면**
 - 작은도서관과 다목적실의 내부 공간 구성과 운영에 대해 계획 운영자, 다양한 주민층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교류 실시
- **프로그램 및 공간적 측면**
 - 문학 프로그램 수요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인문학 도서, 시집 읽기, 글쓰기 수업 등을 다목적실을 활용한 문학 프로그램이나 어린이도서관 내 일반 주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개설 제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은 각사업의 활성화계획서에 표기된 주소 및 구역 지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네이버 지도 이미지를 활용함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율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돌봄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별관) 조성**

● 환경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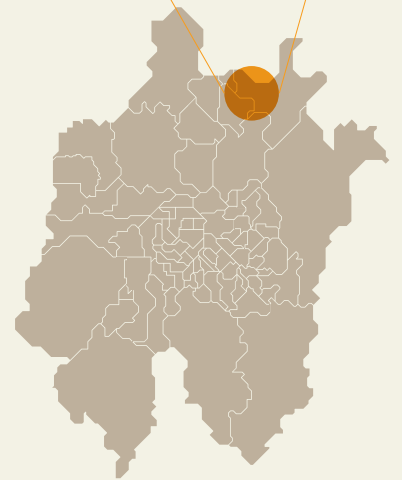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리적 접근성 낮다는 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돌봄센터의 분리에 따른 불편함을 우려함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법 고민
-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공간계획'에서 벗어나 이용자 성별을 모두 고려할 필요 있으며, 이를 위해 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젠더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참여 요구

● 운영적 측면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장보육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단기 보육 프로그램 운영, 상주 보육교사 인력 확충 등 현실적인 '틈새 돌봄' 지원 방안 모색

● 프로그램 및 공간적 측면

-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도서관'과 부모-자녀 활동 공간 제공, 육아 및 교육 정보 공유, 육아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육아' 공간 마련 요구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점에 주목하고,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은 각 사업의 활성화계획서에 표기된 주소 및 구역지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네이버 지도 이미지를 활용함

젠더 콜로키움 # 양경언 # 문학평론가 # 퀴어문학 # 퀴어하게 # 비규범성

제3회(통합 14회) 젠더 콜로키움, 맛있는 사고에 주름을 잡다
시, 퀴어하게 읽기- 젠더 규범성을 허무는 문학에 대하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신진 연구자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오고 있다. 12월 6일 열린 2019년 마지막 젠더 콜로키움에서는 『시, 퀴어하게 읽기- 젠더 규범성을 허무는 문학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양경언 문학평론가의 발표가 있었다. 양경언 평론가는 한국 문학 현장에서 퀴어 문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시를 퀴어하게 읽는 방식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양경언은 '퀴어'는 보편성, 규범성을 가로지르는 개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며, 퀴어 문학이 '꼭 이래야 한다'는 관계 맺기의 규범을 허물고 다양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그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 시가 씌어져 왔으므로 '시는 이미 퀴어한 것'이며, 지금껏 자연스럽게 없다고 여겨졌던 '비규범성'을 이루는 감정과 상태, 관계 등은 이미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양경언
문학평론가

